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㉚

所謂修者 古人謂爲不祥之物 不得已而
소위수자 고인위위불상지물 부득이이
用焉
용언
此次打七 已經三箇半七 還有三箇半七
차차타칠 이경삼개반칠 환유삼개반칠
下三箇半七 身心較爲純熟 用功當此前
하삼개반칠 신심교위순숙 용공당차전
容易
용이
諸位不可錯過因緣 務要在下三箇半
제위불가착과인연 무요재하 삼개반
七內
칠내
弄箇水落石出 發明心地
롱개수락석출 발명심지
才不孤負這箇難得的機緣
재불고부저개난득적기연

이른바 닦음이란 옛 사람도 이르기를 '상서롭지 못한 일인지라 부득이하게 사용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제부터 잘못된 칠견을 깨겠다. 이미 반쯤은 깼으나 아직도 반쯤 남아 있다.

이하의 반은 몸과 마음이 비교적 순숙되어 있으니 공부하기가 전보다 쉬울 것이다.

여러분은 이 인연을 그르쳐서는 안될

二者 話頭看得上 有了點把握
이자 화두간득상 유료점파악
但是死死握着一片敲門瓦子
단시사사악착일편고문와자
念著 念佛是誰 這箇話頭 成了念話頭
염착 염불시수 저개화두 성료염화두
以爲如此可以起疑情 得開悟
이위여차가이기의정 득개오
殊不知這是在話尾上用心 乃是生滅法
수부지저시재화미상용심 내시생멸법
終不能到 一念無生之地
종불능도 일념무생지지

둘째는 화두가 잘 들려서 잡히는 듯 하는게 있으나

다만 죽을 힘으로 문 두드리는 기왓장 한 조각을 잡고 있을 뿐이라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를 염하고 있으나 그런 화두는 염화두를 이룸인데 그와같이 하면 의정이 일어나 깨달음에 이를 줄 안다.

이것은 화미에 마음을 쓰는 것이어서 곧 생멸의 법이니

끝내 일념무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暫用尙可 若執以爲究竟實法 何有悟道
잠용상가 약집이위구경실법 하유오도

"물이 말라 돌 드러나듯 마음 밝혀야 의정 일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것이니 힘써야 할 것은 아래의 반이다.

물이 말라서 돌이 드러나듯이 실상이 드러나도록 마음을 밝혀야

이처럼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這二十多天來 諸位一天到晚起早睡遲
저이십다천래 제위일천도만기조수지
努力用功 結果出不了四種境界
노력용공 결과출불료사종경계
一者 路頭還有搞不清的 話頭看不上
일자 로두환유고불청적 화두간불상
糊糊塗塗 隨來打盹
호호도도 수증타순
不是妄想紛飛 就是昏沈搖擺
불시망상분비 취시혼침요파

지난 20여일동안 여러분은 매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공부에 노력했으니 그 결과는 다음 네가지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는 공부길에 아직도 뚜렷이 들리지 않는게 있어서 화두가 잘 살펴지지 아니하여 흐리멍텅하게 대중을 따라 눈을 내리깔 뿐이라

망상이 흩날리지 않으면 혼침이 화두를 뒤흔드는 것이다.

之期
지기
晩近禪宗之所以 不出人了
만근선종지소이 불출인료
多緣誤于在話尾上用心
다연오우재화미상용심
三者 有的會看話頭 能照顧現前一念
삼자 유적회간화두 능조고현전일념
無生
무생
或知念佛是心 卽從此起處 纔直看到無
혹지염불시심 즉종차기처 맥직간도무
念心相
념심상

잠시동안은 괜찮지만 만약 이에 대한 집착으로 구경을 삼는다면 어찌 오도를 기약할 수 있으리오.

근자에 선종에서 사람이 나지 않는 까닭은 화미에 마음을 쓰는 탓이라 하겠다.

셋째, 어떤 이는 화두가 잘 들려서 능히 일념무생을 비추거나

혹은 염불하는 자가 곧 마음임을 알아서 곧 일념이 일어나는 곳을 따라 곧장 무념심상으로 나아간다.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자신의 복밭에 씨뿌려

운경스님 〈봉선사 주지〉

어떤 절대자가 운명 결정하는 것도 극락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과법따라 자기가 지은만큼 받게 되니 참회하고 선업 쌓으십시오

내가 1905년生이니까 새해가 되면서 아흔 세살이 됐습니다. 출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으니 지난 날이 〈금강경〉에서 말한 '현상계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같고 이슬같고 또한 번개같으니…'의 구절 그대롭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좌선과 간경(看經)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년전에 새벽예불을 나가다 미끄러져 뼈를 다치는 바람에 운신이 힘들어 새벽예불을 직접 모시지는 못합니다만 하루에 7~8시간은 꼭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세기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 기도나 공부는 절대 미루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대신 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불자들중엔 '스님이 다 해주시겠지' 또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하면 되지뭐'하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하니까 마음만 앞서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니 젊을 때 공부를 밀어붙여야 하는 겁니다.

옛날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 지눌스님이라고, 고려때 국사를 지낸 유명한 고승입니다. 그 스님에게 누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보조스님이 누님에게 항상 염불을 하라고 할때마다 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염불공부를 해서 무엇하겠나. 설사 내가 도를 닦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까지 제도해 주는 아우가 있는데 누나인 나야 당연히 좋은 곳으로 제도해 주지 않을라구" 보조스님은 말로써는 누님을 제도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방편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누님이 절에 찾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방에 일부러 진수성찬을 가득 차려 놓았습니다. 누님이 들어오자 스님은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혼자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누님은 먹으라는 말도 없이 혼자서 먹는 것을 보고 섭섭하고 노여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지네 왜 이러나" "무슨 말씀입니까, 누님?" "무슨 말이라니? 나는 그만 돌아가야겠네. 덧십리 걸어온 사람을 그냥 앉혀두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번 먹어보란 말도 없잖은가? 어찌 누이 대접을 이렇게 하는가. 섭섭하네. "누님, 제가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누님이 왜 배가 아니 부르십니까?" "자네가 먹었는데 어찌 내 배가 부르다는 말인가?" "제가 도를 깨치면 누님도 제도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동생이 배부르면 누님도 당연히 배가 부를텐데요." "동생이 밥먹었는데 어찌 내 배가 부를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어도 누님이 배부르지 않듯이 제가 수행하면 제가 제도되는 것이지 누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누님이 극락가길 원한다면 누님이 직접 염불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극락도 대리극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이 말을 듣고 깨우친 보조스님의 누님은 이후 지성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 1905년 충남 서산 生
- 1921년 봉선사서 태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 해인사 김용사 유점사 강원서 수학
- 대승사 수덕사 표훈사 유점사 등 선원서 정진
- 자재암 · 흥룡사 주지 역임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수행통해 몸과 마음 순화되면 이웃까지 저절로 편안해져 나라와 세계가 화평해집니다"

이 일화는 내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하는 주체자는 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극락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인과의 법칙대로 스스로 지은만큼 받게되는 것이니 발심참회해 전생에서 쌓인 업장은 녹이고 열심히 선업을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출가한 것은 16세때입니다. 15살때 사촌형님을 따라 장구경을 갔다가 길을 잃고 집을 찾아오는 길에 탁발하는 스님을 봤습니다. 스님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무척 신기했습니다. 스님이 절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따라나니다 봉선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때 봉선사 규모는 대단했어요. 조선 최고의 승려로 추앙받던 홍월초스님등 노스님이 7~8명, 중견스님들만도 한 40명 사는 큰 절이었지요. 행자생활을 하다가 태오(泰悟)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습니다. 17세때부터 초심 발심 자경문을 배웠고 한집안이었던 화계사에서 2년동안 목탁치고 염불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때 스님들은 밥먹는 것도 걸음 걷는 것도 다 법도에 맞았어요. 지금의 승려생활이야 옛날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느슨해졌다고 봐요. 당시는 지계가 무척 엄격했지요. 큰스님들은 아랫 사람들이 잘못하면 고칠 때까지 반복하여 일러 주셨지요.

19세가 되던 때 동화노스님 칠순을 맞아 당시 쟁쟁한 명성을 얻고있던 합천 해인사의 고담스님을 초청해 화엄경백일산림을 열었어요. 심부름을 하면서 법문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지요. 초발심은 이미 배웠지만 화엄경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경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지요. 그때 스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셔요.

나에게도 불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기도에는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천수경연구

천수경은 한국불교에 소개된 수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인식되고
독송되는 경전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천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서이다.

〈현행『천수경』〉은 한국에서 형성된
독특한 신앙의례적 경전이다.
〈현행『천수경』〉은 한국불교신앙의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장경 어디를 보아도 현재 한국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천수경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저자는 광범한 연구를 통해, 〈현행 천수경〉이
이전의 많은 의식집들의 집대성이며
그것들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과 한국불교 특유의
통불교적 성격, 즉 밀교와 화엄, 정토, 천태법화, 선 등의
요소를 종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각 지음/신국판 양장/324쪽 값 10,0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선의 생명력을 느낀다!

선의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는
오늘의 선을 생각케 하는 책!

禪 이야기

초심자에게는
선으로 가는 길을,

달마에서 성철까지!
생동감 넘치는 선의 일화, 선의 역사와 본질을
알기 쉽게 정리한 선 입문서.

제1부 아름답고 힘찬 선의 지혜
제2부 선의 기원과 본질
제3부 선의 탐구, 선어록을 읽는다

일지 지음/신국판/390쪽/값 8,0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육조혜능스님의 금강경구결 최초 수록

금강경
육조대사구결

금강경구결은
금강경의 내용을
간결하게 압축한
금강경의
핵심이다.

1084년 중국 나적스님이 당시에 유통되던
판본들의 오자 · 탈자를 바로잡은 것을
최초로 번역한 이 책은, 『배불론』을 쓰려다
『호법론』을 쓴 당나라때의 재상 장상영(無盡) 거사가
각 품마다 간략한 해의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육조 述 · 이동형 譯 · 송근일 監修
신국판 양장/233쪽/값 6,500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